

경관복지의 개념과 연구 방향

배정환* · 이명준** · 오민석*** · 김민주*** · 손은신***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I. 경관복지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생활과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 쾌적한 생활 환경 및 자연 환경 등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 환경과 일상 생활 환경 등과 관련한 복지 개념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중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환경 정책 기조의 하나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복지이다. 환경복지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고재경 등, 2012: 4)으로 정의된다.

이 논문은 환경복지의 일환으로 ‘경관 복지(landscape welfare)’를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environment)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문화적 상황의 총체”(황기원, 2011: 106)라면, 그 중 “인간의 시각에 포착되는 환경의 한 국면이 경관”이다. 환경의 시각적 국면인 경관(landscape)은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물리적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관 개념은 “내부자의 일상적인 실존과 삶의 장소”, “부지와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면서 일상적 삶의 국면인 환경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관복지’는 환경복지의 근본적 의미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조경의 특수한 가치를 설명하는 복지 관련 용어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공공 복지는 조경업이 탄생할 당시의 기본 목적이기도 했다. 현대 조경의 창시자 프레더릭 로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는 도시 공원의 시초격인 센트럴 파크를 조성할 때, 조경이 도시민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점은 경관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복지에 기여하는 경관의 물리적 조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다시 말하자면, 경관복지는 실천적 복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이 논문은 경관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이후에 진행될 연구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와 관련된 인접 분야의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관복지 개념을 정립하고(II장), 경관이 지니는 복지 가치와 효과에 주목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III장), 이를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IV장).

II. 경관복지 개념 정립

경관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복지의 개념, 그리고 경관, 환경, 공간, 생태와 관련된 복지 개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관련 개념

구분	내용
복지	“살아감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강, 물질적인 풍요, 행복, 그 밖에 well-being에 관한 상태 또는 조건”(고수현, 2012: 21)
환경복지	“국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 수로서 환경의 질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계층 간, 지역 간 환경 자원 및 환경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경 편익과 비용의 공평 배분을 통해 보편적인 삶의 질 개선을 돕는 것”(황계영, 2012: 20)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고재경 등, 2012: 4) [한계 및 문제점]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학에서의 지속가능성 등 기존 개념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음
생태복지	“생태계와 함께하는 환경 친화적 인간복지”(최재천, 2009: 61) “생태계의 한계를 존중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홍성태, 2010: 30-39) [한계 및 문제점]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한 인식 및 사고의 전환적 측면이 강함
공간복지	“공간과 복지의 합성어로,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담아내는 건강한 공간 상태”(한국여성건설인협회, 2008)
건축복지	“생활복지와 공간복지의 통합을 의미하는 개념”(이명변, 2012: 16-22) [한계 및 문제점] 최근에 제기된 개념으로, 개발에서 복지 중심으로 건축 개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자각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공공복지	“자연 환경과 휴먼 커뮤니티를 돌봄으로써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물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George Spears, et al., 2010)
공원복지	최근 조경분야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복지 관련 개념 중 하나로, 모든 사람의 편안한 공원 이용을 지향함 [한계 및 문제점] 조경에서 다루는 대상은 도시공원 외에도 정원이나 하천, 쉼터공원 등 다양하게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요구됨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기초연구사업의 일부임(No.2013R1A1A2010946).

경관복지란 “공공 영역의 경관을 설계·조성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경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안녕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III.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사례 연구

오픈스페이스와 공공 공간 등 광범위한 경관이 지니는 복지 가치와 효과를 다룬 국·내외 보고서를 연구하여 차후 연구 방향의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표 2 참조).

IV. 맺음말

경관복지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사회 공동체 활성화,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같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만큼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후속 연구 방향의 설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복지의 향상을 위해 경관 서비스는 도시 전반의 계획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원, 산림 등의 녹지뿐만 아니

라, 도시 내의 광장이나 유휴 부지 등 공공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이들 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경관 복지 인프라의 형성을 계획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경관 서비스는 양적 공급과 더불어 국민의 실질적 이용과 관련되는 질적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경관 서비스의 접근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 공원 서비스 현황 연구는 공원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것인데, 이는 공원까지의 접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면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셋째, 경관 서비스가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재고해야 한다. 복지의 핵심은 형평성과 보편성에 있다. 환경 및 공간과 관련된 복지 정책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공공 공간의 분포와 그것의 이용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공간의 사적 점유의 문제, 사적 공간의 공적 이용, 다문화적 거주지의 공간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해 볼 때, 경관 서비스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관 복지의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조경의 역할을 재인식해야 한다. 옴스테드에 의해 탄생한 조경이라는 전문업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된 시대의 시민들에게 도시 공원

표 2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문제의식	1. 무엇을 통해 경관 복지를 실현할 것인가?							
분류	장소							
항목	공원 및 녹지	정원	놀이터 및 운동장	숲, 산 등 자연지역	복지시설/여가생활공간	대안 공간 제안		
내용	기본적으로 포함	도시농장, 시민농장, 도시 텃밭 등 의미 확장(plaNYC, 2011; Greenspace, 2011; Stadt Zurich, 2006)	미국 도시평가 지표로 이용 (TPL, 2011; 2013; plaNYC, 2011; City of Vancouver, 2012)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지역을 평가지표/목표로 설정(City of Vancouver, 2012; Stadt Zurich, 2006; 산림청, 2011)	스위스 등의 복지국가권 복지시설/병원/여가공간 등을 공공공간으로 인식 (Stadt Zurich, 2006)	한국의 상황에 맞는 공원 대안 공간 필요: 산, 운동장, 아파트, 하천변 등 (AURI, 2013; 서울시 2013)		
분류	정책/가이드라인							
항목	공원 접근성*		공원 면적		공원 예산			
내용	400m(City of Vancouver, 2012), 500m(서울시 2012), 800m(plaNYC, 2011; TPL, 2013), 1600m(TPL, 2011)		총 공원면적과 1인당 공원면적이 지표로 이용 (Stadt Zurich, 2006; plaNYC, 2011; TPL, 2013; 서울시, 2007)		1인당 공원 예산을 공원 평가 지표로 이용 (TPL, 2013; Stadt Zurich, 2006)			
문제의식	2. 경관 복지를 통해 어떤 차원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인가?							
항목	사회적 차원		생태적 차원		미학적 차원		경제적 차원	
내용	공공성, 안전성, 접근성 등 많은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논의(CLARB, 2010; Greenspace, 2011 등)		환경 지속가능성 등 환경복지 차원에서 논의(CLARB, 2010; plaNYC, 2011; City of Vancouver, 2012; Greenspace, 2011 등)		심미적·창의적 경험 제공(CLARB, 2010) 대체로 잘 고려되지 않음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 및 공동체 건강 증진의 경제적 이익 언급(Appleseed, 2009; ASLA, 2012; Greenspace, 2011 등)	
항목	신체적 차원		정신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			
내용	신체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논의 보고서 전반에서 언급됨(TPL 2011 등)		개인의 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결속 및 사회적 자본의 정신적 가치 논의(Deakin Univ., 2010; Greenspace, 2011)		사회적 결속·자본 등의 정신적 가치 및 사회적 차원의 공공성, 안전성, 공간의 편제 및 분배 문제가 보고서 전반에서 논의됨			
문제의식	3. 유사한 선행연구 및 개념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내용	환경복지와의 관련성		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하는 미래 도시계획 목표는 환경복지의 범주인 대기오염, 건축디자인, 교통, 쓰레기, 수질, 식량, 대기질, 환경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City of Vancouver, 2012; plaNYC, 2011; Stadt Zurich, 2006) 환경복지와 구별되는 경관복지의 범주 인식 필요					

*: 접근성 중 800m(0.5mile)이 '10분 내 공원' 정책의 기준이 된다.

이라는 경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공공 복지적 관점에서 조경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면 앞으로 조경이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향에 대한 혜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고수현 외(2012) 사회복지개론. 서울: 대학출판사.
2. 고재경 외(2012) 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 이슈&진단 35: 1-21.
3. 산림청(2011) 산림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개발연구. 연구보고서.
4. 서울시(2007) 공원현황. 푸른도시국.
5. 서울시(2012) 걸어서 10분 거리 내 한뼘동네공원 조성. 푸른도시국.
6. 서울시(2013) 서울미래 100년의 도시계획 기반마련. 발표자료.
7. 이영범(2012) 건축복지의 사회적 개념 및 건축의 역할 변화. 대한건축학회지 56(10): 16-22.
8. 최재천 외(2009) 생태복지의 개념 및 적용모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9. 홍성태(2010) 생태복지의 의미와 과제. 계간 사회복지 187: 30-39.
10. 황계영(2012) '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에 증점 투자. 나라경제 2012년 11월: 20-21.
11. 황기원(2011) 경관의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2. Apeelseed(2009) Valuing Central Park's Contributions to New York City's Economy. 연구보고서.
13. ASLA(2012) Banking on Green. 연구보고서.
14. AURI(2013) 건축과 도시공간. vol.10.
15. City of Vancouver(2012) Greenest City 2020 Action Plan. 가이드라인.
16. CLARB(2010) Landscape Architecture and Public Welfare. 연구보고서.
17. Deakin Univ.(2010) Beyond Blue to Green. 연구보고서.
18. Greenspace(2011) Understanding the Contribution Parks and Green Spaces Can Make to Improving People's Lives. 연구보고서.
19. plaNYC(2011) A Greener, Greater New York. 가이드라인.
20. Spears, George, et al.(2010) Landscape Architecture and Public Welfare. Virginia: Council of Landscape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21. Stadt Zurich(2006) The Green Book of Zurich. 가이드라인.
22. TPL(2011) From Fitness Zones to the Medical Mile. 연구보고서.
23. TPL(2013) Parkscore. 연구보고서.